

# 체어퍼슨노트

## CHAIRPERSONNOTE

- 경제 이슈
  - 유럽중앙은행(ECB) 기준금리 인하
  - 4월 수출 부진 지속
- 경영 노트
  - 부하의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는 상사의 행동
- 사회 트렌드
  - 치매환자 20년마다 두 배 늘어
  - 청소년 10명 중 7명, 부모 안 모셔도 된다
- 저널 브리프
  - 미국 양적 완화에 대한 5가지 오해
- 洗心錄
  - 잘 살아 보자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http://www.hri.co.kr>로 주시기 바랍니다.

## □ 유럽중앙은행(ECB) 기준금리 인하

- 2일 ECB는 금융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장단기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부양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
  - 금리 인하 : 기준금리를 0.75%에서 0.50%로 0.25%p 인하. 최저 대출 금리는 1.5%에서 1.0%로 0.5%p 인하하였고, 예금금리는 0%로 동결
  - 금리인하 배경 :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로 ECB의 물가 안정 목표치 2.0%를 크게 하회하면서 금리 인하 여력이 확대되었고, 3월 유로존 실업률이 12.1%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경기 침체 지속
  - 자금공급 확대 : 단기자금(MRO) 및 장기대출(LTRO) 공급을 올해 연말로 확대해 고정금리로 최대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며 경기부양적 통화정책 기조 지속
  
- 주요국들의 경기가 완만히 회복세를 보이고, ECB의 경기부양책으로 하반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가 기대되나, 유로화 강세 및 고 실업률 등의 하방위협이 유로존의 회복세를 지연시킬 것으로 전망

## □ 4월 수출 부진 지속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수출은 엔저 영향 등으로 부진한 모습
  - 수출 : 4월 조업일수가 작년보다 2일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엔저 영향 본격화와 중국 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0.4% 증가한 463억 달러에 그침 (일평균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7.9% 감소한 19.3억 달러)
  - 수입 : 원유, 석탄 등 원자재의 도입이 감소하였고, 자본재는 반도체제조용 장비, 액정디바이스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줄어 4월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0.5% 감소한 437억 달러를 기록
  - 무역수지 : 수출은 소폭 증가한 반면 수입은 감소세를 보여 무역수지는 26억 달러 흑자를 기록
  
-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가 여전히 부진하고 엔저의 영향이 점차 본격화 될 것으로 보여 향후 수출 경쟁력 약화 및 수출 증가율 둔화가 우려

□ 부하의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는 상사의 행동<sup>1)</sup>

- 리더들은 조직원의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에 대한 충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
  - 많은 경영자들이 리더십 하면 케네디나 스티브 잡스 등 카리스마적인 리더를 떠올리며 이들이 했던 여러 가지 행동을 모방하려 노력
  - 성공한 리더의 행동을 무조건 따라 하는 것은 몸에 맞지 않는 명품 옷을 입고 있는 것과 유사
  - 결국 내가 편하게 느끼고 지속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이 효과적인 리더십을 계발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
- 리더로서의 성공을 위해 계발해야 할 리더십은 먼 곳이 아니라 매일 실천할 수 있는 평범한 행동에 있음

<부하의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는 상사의 행동>

내 용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가 책임질 테니까 열심히 해봐!”와 같이 불확실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감수해 줌으로써 결과에 대한 부담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해 줄 때 일에 대한 몰입도가 가장 높아짐</li> <li>• 상사가 일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일하는 과정 혹은 의사결정에 대한 충분한 권한을 준다는 의미와 과정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 결과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묻지 않겠다는 것을 포함</li> </ul>
격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신은 잘 할 거야!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혹은 “내가 같이 가 줄게, 힘내!” 등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때</li> <li>• 특히 문제가 생겨서 야단 맞을 줄 알고 잔뜩 긴장하고 있었다니 오히려 격려와 위로를 해 줄 때와 같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용기를 주거나 미래의 성공에 대한 격려의 소리를 들었을 때 조직에 대한 충성도 증가</li> </ul>
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힘들지? 쉬어가면서 해! 아이들은 잘 크고 있지?”와 같이 부하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줄 때</li> <li>• 특히 업무와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사항(예를 들면 가족, 학업, 재정적 상황 등)을 걱정해 주며 챙겨줄 때 감동을 경험</li> </ul>
칭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일은 당신 덕에 가능했어! 잘 해 낼 줄 알았어!”와 같은 상사의 칭찬은 부하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실패에 대한 내성을 갖게 함</li> <li>• 상사에게 직접 듣는 칭찬도 좋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리는 칭찬을 접할 때 부하들의 만족지수는 더욱 크게 상승함</li> </ul>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신은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 이 업무 한 번 해보겠나?” 등 부하를 성장시켜주는 리더를 선호</li> <li>• 성장을 위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거나 나의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읽어내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해주는 경우에 부하들은 상사를 신뢰하게 됨</li> </ul>

1) ‘배려와 격려...어떤 상사는 날 춤추게 한다’(동아비즈니스리뷰, 2013.04)의 내용을 요약·정리함

## □ 치매환자 20년마다 두 배 늘어<sup>2)</sup>

-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노인 인구 589만 명 중 치매환자는 54만 755명인 것으로 나타남(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환자)
  - 오는 2050년이면 270만 명 이상의 노인이 치매를 앓을 것으로 추산됨
  - 치매유병률(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08년 8.40%, 2010년 8.74%, 2012년 9.18% 등으로 꾸준히 증가. 이 비율은 2030년과 2050년에는 각각 10.03%, 15.06%까지 치솟을 전망
  - 현재 54만 명 수준인 치매환자가 20년마다 두 배씩 늘어나는 속도로 급증해 2050년이면 무려 271만 명의 노인이 치매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될 것임
-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서는 두부 외상 경력, 사별·이혼·별거 등에 따른 배우자의 부재, 우울증 등이 꼽혔음
  -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3배가량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급증하는 독거 노인의 숫자가 치매 환자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줌

## □ 청소년 10명 중 7명, 부모 안 모셔도 된다<sup>3)</sup>

- 여성가족부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부모를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002년 67.1%에서 지난해 35.6%로 급격하게 감소
  - 반면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응답은 2002년 20.5%에서 지난해 50.0%로 2배 가까이 증가했음
  -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
- 결혼에 대한 청소년들 인식은 상당히 관대
  -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2002년 62.1%에서 지난해 54.9%로 크게 줄었지만,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자는 같은 기간 34.1%에서 39.1%로 증가
  -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58.4%),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73.4%),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25.9%)

---

2) ‘치매환자 20년마다 두 배 늘어’(서울경제, 2013.5.3)를 요약 정리함

3) ‘청소년 10명 중 7명, 부모 안 모셔도 된다’(매일경제, 2013.5.3)를 요약 정리함

## □ 미국 양적완화에 대한 5가지 오해<sup>4)</sup>

- 美 경제전문매체 마켓워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완화(QE) 조치에 대한 일반인들의 5가지 오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함

### ① Fed에서 돈을 찍어낸다? : 시중 통화량 중 90%는 은행이 통제

- Fed가 공급하는 본원통화는 시중 통화량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실제 유통되는 통화량의 90% 이상은 은행의 대출을 통한 과생통화가 결정
- 실제로 은행 대출이 지난 수년간 감소 추세를 보임에 따라 Fed의 공격적인 양적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중 통화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음

### ②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 : 인플레이션 발생하지 않음

-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제로금리 정책과 추가 양적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의 주요 발생 요인인 대출 수요 및 공급은 금리보다 리스크 수용 범위에 훨씬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됨

### ③ 양적완화 자금이 증시에 유입? : 투입자금의 약 18%만 증시로 유입

- Fed가 양적완화를 통해 시장에 투입한 자금 중 약 18% 만이 주식을 비롯한 투자 상품에 사용됨
- 현재 미국 증시가 호황세를 보이는 것은 QE의 직접적 영향이 아니라 Fed의 공격적인 조치가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상승시킨 결과임

### ④ 양적완화가 유가폭등의 원인이다? : 유가폭등과 무관

- Fed가 양적완화 조치를 시행하기 전인 2002년부터 유가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양적완화 조치 시행 이후 유가는 오히려 혼조세를 나타냄
- 유가폭등의 원인은 2002년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경제 성장 및 원자재 시장 발전에 따른 투자 상품으로서의 역할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

### ⑤ 양적완화가 달러 약세를 초래한다? : 달러 하락세와 무관

- 유가와 마찬가지로 달러 또한 양적완화 조치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하락세를 나타냄
- 실제로 양적완화 조치와 무관하게 2002년부터 2007년까지 美 달러 가치는 약 20%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4) '마켓워치가 보도한 '미 양적완화 5가지 오해'(파이낸셜뉴스, 2013.04.25) 참조

## □ 잘 살아 보자

우리는 무작정 걷고 싶을 때가 있다. 자유롭게 쉬는 걸음은 그 자체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걷게 된다. 여기에 무거운 배낭까지 메고 날씨까지 무덥거나 춥다면 즐거운 걸음이 아닐 것이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위에서 설만한 장소를 찾아보자.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에 갇혀있기보다는 즐거움을 찾는다면 절망적 상황이 희망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칭윈은 「인忍, 때를 기다림」이라는 저서에서,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장장의 현실을 인내하고 적절한 기회를 포착한다면 성공은 당신의 것이다.”라고 말했다. 불안할수록 차분한 지혜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위기관리 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은 나의 삶을 밝은 쪽으로 나아가도록 한다. 또한 에릭 시노웨이의 「하워드의 선물」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지금 걸려 넘어진  
그 자리가 당신의 전환점이다.  
전환점이란 단지 살짝 변화만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야,  
지금까지 달려오던 것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어야 할 지점이지  
그 속에는 우리의 숨은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들어 있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좌절에 빠지기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절망은 희망으로, 불행은 행복으로 바뀔 수 있다. 나의 마음가짐을 바꿈으로써 오늘의 슬픔을 내일의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면 그보다 오늘을 잘사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혹시 인생이라는 길에서 넘어졌다면 이를 나의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들자. 나의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다면 인생에 다가온 슬픔의 그림자는 어느새 사라지고 희망의 빛이 찬란하게 비취울 것이다.

## 三 思 一 言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한다. 한 마디 말도 세 번 생각하라.